

# 색채심리를 활용한 실내 색채계획

백 낙 선 / 일본색채학교 한국본원 원장

## 1. 서론

200년 전 괴테는 색채론 에서 색채의 감각적 정신적 작용 으로 색이 가진 치유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물체의 색채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 다르게 보이는 현상에 대한 서술로서 그 현상을 인간감정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등 색채를 물리학적, 객관적인 각도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현상학적으로 사물을 관찰하여 인간에게 색채가 보이는 방법 에 대하여 통찰하고 있다.

괴테는 색 그 자체의 성질을 고찰하는 것뿐 아니라 색이 나타내는 연상적인 이미지나 색이 가진 상징성에 대해 연구했다. 뉴턴의 광학적인 색채관(시각중추를 통과한 광 자극의 흥분이 뇌에 전달되어 색을 느끼게 되는 생리적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색을 어떻게 느끼며, 어떤 이미지를 환기 시키며, 색에 따라 어떤 정신적 작용을 일으키는가 라는 것과 같은 현상학적인 인식영역을 탐구 한 것이다. 색채학교와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경험에 의해서도 심리적인 상징주의적 색채관에서는 괴테의 설이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색 이미지를 언어로 바꾸는 워크숍을 해보면 난색 계열(노랑색)에서는 희망, 기쁨, 적극적, 해방감 등이 많으며 한색계열(파랑색)에서는 고독, 우울, 차가움, 내향적인, 냉정함 등이 나타난 것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을 빛과 어둠의 암시로 한 괴테의 상징주의는 예술표현에 있어서 이미지 언어의 보편성을 용해시킨 것이 아닐까.

## II. 색채심리의 연구

이렇듯 색채심리의 연구는 색채표현에 어떠한 심리상태가 반영되어있는지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태고의 인류는 문자표현 이전에 동굴에서 그림을 그려서 의사표현을 했듯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색에 대해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운동화 색, 자주 쓰던 크레파스의 색,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꼭 입어보고 싶었던 옷 색깔, 혹은 여행 중 마음에 남았던 자연의 색, 아팠을 때 빨리 일어나라고 힘을 주었던 꽃의 색, 계절과 함께 찾아오는 자연의 색을 보면서 그리운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입을 옷을 고르면서도 자신의 기분을 전환해 보기도 한다.

여성은 화장과 의상의 색조에서 인테리어 컬러에 이르기까지 색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남자도 그날의 업무에 따라 어떤 색의 양복을 입을지, 어떤 색의 넥타이를 할지에 대해 신경을 쓸과 같이 사회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색에 대해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옷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색상을 선택했는지 또는 방안의 벽지 색에 따라서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과 같이 인간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색을 통해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色은 감각이나 감정의 언어이며 色の 언어(Color language)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색채심리' 라는 단어는 최근에 와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던 20세기를 거쳐서 정신적인 풍요를 원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심리적인 세계에 흥미와 관심이 쏟아지고 색채에 대해서도 그것에서 심리적인 가치를 이끌어내려는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색채심리를 이론적인 것만을 배우는 '학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친밀함을 바탕으로 색채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발상이 중요하다.

### III. 생활에 활용되는 색채심리

#### 1. 색은 “마음의 언어”

아름다운 배색이나 자신다운 색채를 위한 감각을 연마한다는 것은 심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색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경우 대부분 개인적인 심리상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배색' 이라든지 '어울리는 색' 등의 이론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정 색을 마음에 들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색과 자신의 기분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방적인 기분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에 딱 어울리는 색, 혹은 긴장하고 있을 때 간절해지는 색 등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기분 변화와 색이 어떤 관계가 있는 가를 아는 것은 색채 감각을 익히는 것과 색채가 인간에게 미치는 작용을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 이렇듯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첫걸음은 색을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 2. 컬러히스토리를 통한 색채흐름

색과 마음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방법으로 개인의 색채흐름을 통해 개인의 삶의 역사를 알아가는 컬러히스토리 는 지금까지의 개인의 색채역사를 회상하며 자신만의 차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유아기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마음에 남아있는 색채를 지워나가는 방법이다. 기억 속에 있는 색을 컬러 칩에서 선정하여 워크紙에 붙여나가는 작업을 통하여 개개인이 선호하는 색과 선호하지 않는 색의 관계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게 된다. 나의 즐거운 기억, 슬픈 기억과 연결된 것은 어떤 색인가? 건강상태와 색채기호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까지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거나 치유해준 것은 어떤 색인가? 자아실현, 가족관계를 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등..... 컬러히스토리를 통해 정신적인 변화나 생활의 변화와의 관계를 알아가는 색채에 의한 자신의 역사 인 것이다. 즉 색채와 심리와의 관계를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기자신을 알아가며 나아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색채레슨이다.

#### 3. 색채를 통한 테라피

이와 같이 색과 마음의 관계를 개인의 컬러히스토리를 통하여 개개인의 독특한 색채의미를 주거환경에 적용한다면 색채를 통하여 개개인의 정신과 육체에 테라피적인 요소로서 살아가는데 활력을 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보편적인 색채의미와 자기만의 독

특한 색채의미를 잘 조화 시킴으로서 주거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 IV. 색채와 주거공간

주거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하는 실내이미지는 조사를 통해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디자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지만 주거인의 생활스타일이나 가족구성, 나이, 교육 정도 등에 따라 주거조건의 방향은 달라진다. 실내색채는 벽, 바닥, 천정 뿐 아니라 가구, 커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체에 적용되므로 하나의 색채로 이루어 질 수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실내 색채계획에 있어서 색의 선정과 색의 조화는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벽의 색 하나에도 주거인이 가장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색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디자이너의 센스에만 의존하거나 마케팅에 의해 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할 사람을 주체로 하여 컬러디자인을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대상이 되는 사용자들과 함께 컬러워크숍이나 컬러히스토리를 행하고 거기서 색채표현을 축적한 이미지를 실내 컬러 디자인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 1. 노인복지시설의 색채계획

노년인구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특수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지금 소개 되어지는 사례는 일본의 특별 노인 복지시설의 색채계획으로 요양시설에 계신 고령자 분들의 컬러워크숍과 컬러히스토리를 통한 입상으로 여러 데이터를 참조하여 노인 분들이 매일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색을 사용할까 의 연구를 거듭함으로 전체를 컬러 코디네이터 해 나간 것이다. 방의 용도에 따라 색채효과를 고려하여 내장의 색을 다르게 하고, 주로 난색계의 소프트 한 색을 중심으로 시설전체가 밝고 선명한 느낌이 들게 색을 입힌다. (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의 기호는 차분하고 안정된 색을 연상하기 쉬우나 의외로 선명한 색을 찾는다는 것은 워크숍을 통해 알 수 있다 )

##### 2. 컬러히스토리를 활용한 실제의 일본 복지시설의 예

1. 언뜻 보면 유치원과 같은 느낌을 주는 산뜻한 색의 건물 외벽컬러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살게 될 노인 분들의 컬러워크숍의 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기운이 나고 활력을 찾는 색이 주를 이룬다. (그림1)
2. 색이 가진 기호적, 언어적 의미를 이용하여 건물 안의 각 장소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판으로 노인 분들의 방향 및 위치인식을 돕기 위해 색을 활용하고 있다. 초록색은 장기체재를 하는 노인 분들 방의 방향, 노란색은 교류회장으로 가는 방향 등 색 하나하나에 각 장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시력이 떨어지고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노인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색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2)
3. 대다수의 노인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차도 마실 수 있는 교류의 장은 화사하고 따뜻한 노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 4. 개인 방은 자신이 원하는 색의 방을 선택하도록 한다.

크게 한색과 난색 계열로 남쪽에 위치한 방은 파란색, 초록색의 한색계열, 북쪽에 위치한 방은 노란색, 빨간색의 주조로서 따뜻한 기분이 들게 한다. 자신에게 맞는 느낌의 색으로 자신이 생활할 방이 꾸며져 있다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과 본인이 자신의 방을 선택한다.

## V. 결 론

위와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색채계획 후 노인들에게 있어서 컬러를 통한 테라피 효과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 분들의 경우 배회로 인한 관리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개인 방을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선택하게 한 후로는 각자의 방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즐기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문제가 줄어들게 되었다. 반대로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방에만 있으려 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거부하게 되는데, 식당의 색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색으로 생기 있게 함으로 우울증 증상의 노인 분들 뿐 아니라 시설내의 대부분 노인 분들이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다른 여가 시간에도 함께 모여 대화를 하는 공간으로 복지시설의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색채와 인간의 심리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인간의 시지각 활성화에 기여한 컬러히스토리 워크숍 프로젝트는 실내디자인의 건강 미학을 창출하는 새로운 디자인 기법으로 부각 될 것이다.

색은 그 사람의 살아온 방법, 자세하게는 마음자체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색과 마음은 불가사의한 관계로 존재한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생생한 마음의 표정이나 생명의 숨소리 같은 것이 색을 통해 전달되므로 그 마음의 에너지는 인생을 운택하게 해주는 원천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진정한 컬러디자이너는 컬러를 실제 생활에서 느끼고, 활용하고 발견하는 사용자, 우리들 개개인 자체가 아닐까.

## 참고문헌

1. 색채심리, 스에나가타미오 지음, 박필임역, 예경
2. 컬러는 닥터, 스에나가타미오 지음, 박필임역, 예경
3. 색채기억, 스에나가타미오 지음, 강축영, 도서출판 국제
4. 실용색채학, 박도양, 이우 출판사
5. 색채의 이해, 문은배, 도서출판 국제
6. 색채계획을 위한 색채이미지연구, 조성희, 대한건축학회 논집
7. Goethe.J.W.v. Zur Farbenlehre 색채론, 정희장역, 초판 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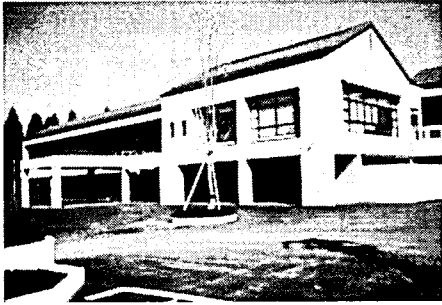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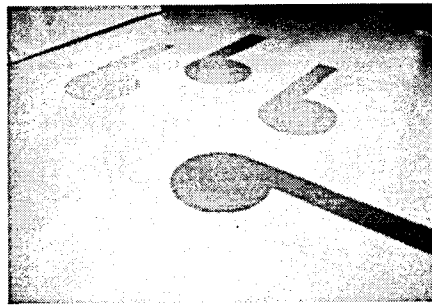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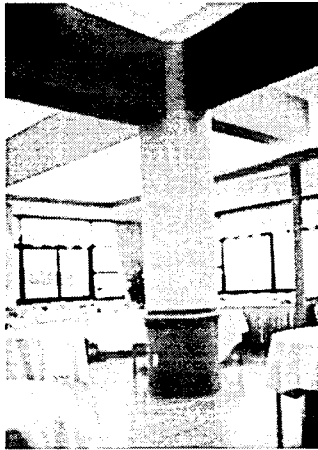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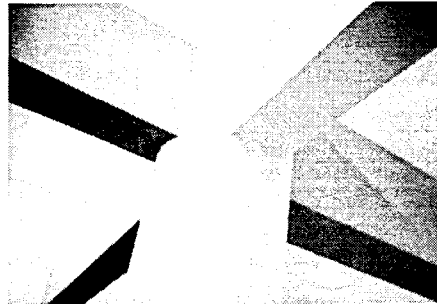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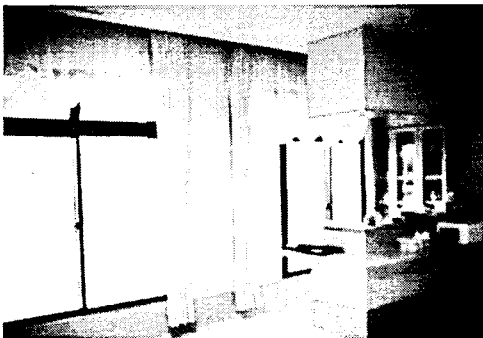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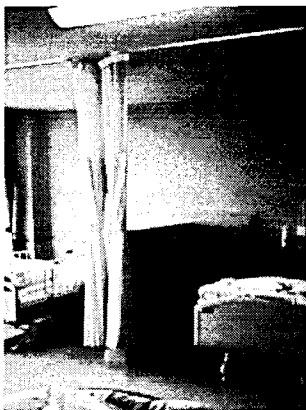


그림 4